

소모임 [합·길]

4월 27일, 반갑고 정다운 모습들과 안부 인사 나눴습니다.



‘공부하는 모임, 책 읽는 모임, 진중한 모임’ 함께사는길(합길) 4월 정모가 지난 27일(화) 저녁 신기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7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모에는 김미선, 이정엽, 조천래, 김영원, 김태성 회원, 김상희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최근의 근황을 소개한 뒤 읽고 요약한 내용을 리뷰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꼼수 거짓 잡기 (김태성)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의 면죄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불릴 정도로 거짓과 부실, 꼼수가 있음.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응하려고 펴낸 ‘환경영향평가 대응 액션 노트’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읽는 방법, 관련 법률정보 확인 방법, 참고할 사이트 등을 담았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인허가 단계. 지체되면 사업자에게는 큰 손실이 되 사업자는 기한을 뻑뻑하게 준다거나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싶어함.

○ 규제 완화했더니 화학사고가 늘었다 (조천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법들이 기업들은 ‘기업을 죽이는 규제’라면서 완화해 달라고 함. 화학물질관리법 이후로 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은 화학물질관련 제도가 과잉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했음. 전경련과 경총은 기업을 죽이는 규제라고까지 말하면서 규제철폐를 요구했음. 올해 4월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자체를 완화해버렸음. 그러자 줄어들던 화학 사고는

작년에는 오히려 전 년에 비해 54.8%가 상승한 96건이 발생.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의 골든타입이라고 했던 발언을 실천하고 노후화된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내가 버린 것들은 어디로 가나 (김미선) 선택받은 60% - 해리공정이란 종이박스 등 종이류를 물과 섞어 종이팩을 풀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종이류는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로 사용. -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

별한 후 세척하여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

-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이 생산된다.
- 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듦-건축물당,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됨.
-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아짐.
- 비닐류는 보통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이다.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40% -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되어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되는데 결국은 매립하거나 소각된다.

지연관계상 실지못한 내용은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주저마시고 전화주세요. ^^ 061) 682-0610, 010-4644-8619 (김상희 부장)

[지구의 날 기념] 연꽃어린이집 가족 우리 동네 플로킹

5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4일 (토) 연꽃어린이집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동네 플로킹을 웅천천수공원 주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연꽃어린이집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주어진 쓰레기들

은 어떤 쓰레기들이 많는지 분류해 보았습니다. 한 가족이 주어진 쓰레기를 대표로 조사해 보았더니 233개로 담배꽂이가 가장 많았고 일회용 컵, 비닐포장지, 종이포장지 등이 많았습니다.



[자연속 청소년들]

4월 17일, 웅천해변공원 플로킹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웅천에 있는 여러 쓰레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집으며 우리가 얼마나 자각 없이 쓰레기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들어온 건 어디 가든지 보이는 담배꽂이였다. 실제로 우리가 주운 쓰레기의 대부분이 담배꽂이였고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풀보다 자연스럽게 버려져있어서 가끔 내가 풀을 뜯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담배꽂이처럼 자각 없이 버리게 되는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고 이제는 나부터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플로킹을 했다. 처음엔 쓰레기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건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와서 놀랐다. 쓰레기 줍기가 모두 끝나고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았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 담배꽂이가 277개로 가장 많았다. 플로킹을 하면서 길거리에 내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다는 걸 느꼈고 나라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 - 강지현



[전국연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 (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

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 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 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중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에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

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4.15. 환경운동연합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바다식목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육지에 식목일이 있듯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입니다. 육지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며 공기를 정화해서 산소를 공급하듯 바다에도 해조류등을 이식하고 키워서 바다숲을 이루면 다양한 해조류에서 플랑크톤이 번식하고 물고기의 산란장이 되어 어린 치어들이 그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다의 해조류는 공기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많은 산소를 내뿜는 기능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식목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현실은 기후변화 산업화로 오폐수 유입 등 바다는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육지에서 버려진 온갖 쓰레기와 바다에서 버려진 페어구나 기름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변화로 발생하는 적조등 요즘 일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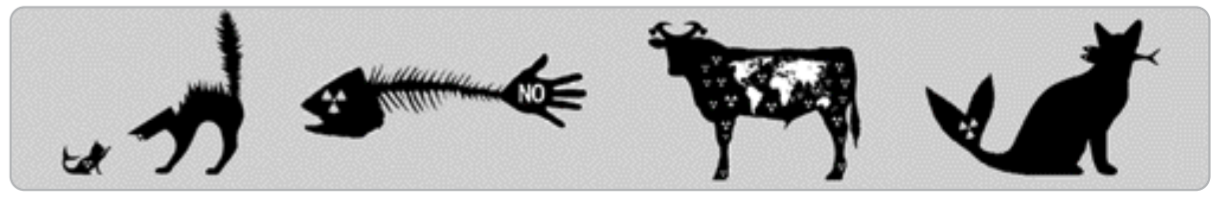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어류 및 해산물의 오염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아니라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정화될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바다식목일(5.10)을 맞이하여 우리지역 연안의 수중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바다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물어 보았고 바다에는 어떤 게 있을까 각자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사이에 잠수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채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망에 가득 담은걸 꺼내면서 이로운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리하며 미래세대 아이들이 바라본 바닷속 현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아니라 온갖 수중쓰레기 불가사리, 바다위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는 또 어떤가요? 다함께 물속에서 건진 수확물로 글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불가사리, 성게, 페트병, 캔, 페어망, 납추,

플라스틱, 일회용품, 해삼, 게, 소라, 미역, 청각, 톳, 멍게, 고동, 굴, 키조개, 파래.....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금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다식목일은?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 매년 5월10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날이다.



작품으로 지구를 지키다! - 최병수 회원님 만남 -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성찰하는 작품들로 환경운동을 해온 최병수 회원님. 회원님은 일상의 소재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도 친숙히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작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1987년 6월 항쟁, ‘한열이를 살려내라’ 결계그림을 기억하시는

지요? 그 때를 시작으로 늘 시대의 문제를 고민해온 최병수 회원님은 여수환경연합의 평생회원입니다. 요즘에는 돌산 백초초등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환경연합 행사 장소로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작품으로 환경운동의 최전방에서

계시는 최병수 회원님, 회원님의 작품 활동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출연을 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최병수'를 검색하시면 '어바웃 우리동네'에 나오신 작가님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